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동 344-22 한광대학교병원 5층 1층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8년 9월 6일 목요일 (음 7월 27일) 제2125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전국체전 성공 준비도 철저히

송하진 도지사 주재 상황 현장보고회 열어 익산 종합운동장 등 시설점검 현장행정

전북도는 올해 개최하는 제99회 전국체육대회(10.12~10.18) 및 제38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10.25~29)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5일,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전국(장애인)체전 준비상황 현장보고회를 했다.

이날, 체전준비상황 현장보고회는 전라도 정도 천년을 맞아 15년만에 개최되는 전국(장애인)체전을 선수·국민 모두가 행복한 문화·관광체전 추진을 위하여 도, 시·군, 체육회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 개최지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진행했다.

전국체전 홍보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김영로 전북도 전국체전준비대책추진상황보고와 주요인사 초청·의견, 선수단 숙박 및 식음위생관리대책, 소방안전대책 등을 보고하고 주 개최지 익산시 준비상황보고를 마쳤다.

또한, 주 개최지 익산시 정현을 시장, 시군 부단체장, 양체육회 사무처장(도체육회 최형원, 도장애인체육회 노경일), 도협업부서 등 14명을 대상으로 송하진 도지사 주재로 경기장주변 등 환경정비, 선수단 승송지원, 체전대비 종합적인 준비상황 등 굵직한 사안을 상대로 심도있게 체전대비 소통·협

업토론의 장으로 2시간여 동안 진행했다. 특히, 준비상황 현장보고회를 마치고 주경기장인 익산종합운동장으로 이동하여 경기장시설 공·승인 추진상황,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상황 등을 점검하는 현장행정을 펼침으로써 전국체전을 1개월여 앞두고 아주 중요하고 의미가 큰 현장보고회였다

는 평이다. 전국(장애인)체전 성공개최 토론회를 주재한 송하진 도지사는 "전북도에서 15년만에 개최되는 대회의 만큼 새롭게 변화된 도민의 지력을 대내·외에 알리고 전북의 재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하므로, 대회·행사장 홍보 및 숙박·교통·경기장주변 환경정비 자원봉사자 운영 등을 통해 양대 체전의 성공적인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경기장, 편의시설 등 동선에 따라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히 살펴줄 것"을 당부했다.

전국체전은 체전의 성공 개최와 국민 모두가 축제와 화합의 장으로 만들어 질 수 있도록 47개 종목 73개소(장애인체전 26개 종목 33개소)를 14개 시군에 특화 종목과 지역 인재를 고려하여 최소 1개 이상 경기장을 배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경기장 시설 확충 사업은 2016년도부터 총사업비 633억원을 투자하여 52개소 경기장을 개보수 하고 있는데, 이는 도 재정여건을 감안해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를 볼 수 있는 알뜰 체전이 될 수 있도록 기존 체육시설 50개소를 우선 활용하여 리모델링하고 2개소는 경기장은 신축했다.

/김진성 기자



용담댐 방류... 구경하는 방문객들

전안군 용담면 용담댐이 2013년 이후로 5년 만에 방류를 실시한 5일 거센 물살이 빠르게 내려오고 있다. 이날 오후 3시부터 방류를 시작한 용담댐은 초당 300톤기량을 방류해 하루 2080만 톤을 방류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7일 오후 6시에 방류를 마친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뿌리 뽑는다

전북도, 학교주변 불법주정차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등 나서

전북도는 2017년 발생한 교통사고 다발 어린이보호구역을 대상으로 현장 여건에 맞는 정비방안을 마련하고 근원적 문제 해결을 위해 보다 효과적인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2017년에 발생한 교통사고 다발 어린이보호구역은 익산시(모현초)와 정읍시(한솔초) 2개 학교이며 두 지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모두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 보행자

를 충격(경상)한 사고이다. 지난 7월 민·관 합동 현장점검 결과 사고의 원인은 운전자들이 불법 주정차로 인한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린이들의 시야확보 미흡과 과속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 및 안전한 통행로 미확보 등으로 밝혀졌다.

이에 전북도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820개의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올해 60개의 초등학교 주변에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행로 확보를 위하여 초등학교 주변에 보도 및 보행로를 설치하고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내에 총사업비 29억6800만원을 투입하여 보호구역 표지, 과속방지턱, 안전펜스 등 교통안전 시설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2019년부터 초등학교 주변에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속도·신호위반, 불법 주정차)을 근절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단속 카메라(128

개), 과속단속 카메라(235개)를 설치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안전 시설개선 사업과 더불어 어린이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교육청, 경찰청과 녹색어머니회 등 민간단체 등과 협업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내 보행자 및 운전자에 대한 교통법규 단속강화 등 홍보·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완주 먹거리정책, 세계가 인정하다

'밀라노 협약' 수상

완주군의 먹거리정책이 세계에서 인정받았다.

완주군은 4일(현지시간)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열린 '2018 밀라노 도시먹거리 정책협약(MUFPP)' 먹거리 정책 우수도시 시상식에서 아시아 최초로 거버넌스 부문 특별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밀라노 도시먹거리 정책협약(MUFPP)은 뉴욕, 런던, 파리, 서울 등 62개국 163개 도시가 가입한 세계협약기구로 먹거리체계를 생산부터 소비까지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만들어 가지는 원칙으로 매년 우수도시를 선정해 밀라노협약상을 수상하고 있다.

밀라노협약상은 완주군의 얼굴 있는 먹거리의 생산과 이에 따른 소비를 위해 로컬푸드 직매장, 농가레스토랑, 학교·공공 급식을 통해 연 600억원

의 지역 농산물을 소비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높은 점수를 줬다.

이번 수상은 군 대표 먹거리 정책인 로컬푸드 시스템이 국제적인 인정을 받은 것으로 국내에서는 이미 '로컬푸드 1번지'로의 명성을 공고히 하고 있다.

특히 FAO(국제식량농업기구) 자료에서도 완주군의 로컬푸드 정책을 우수사례로 소개하기도 했다.

FAO는 "한국은 국가차원에서 매년 50만 명의 농부가 사라지고 연간 1000만 개의 GMO가 수입되는 등 글로벌푸드 등의 폐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하면서 "이 같이 고장난 먹거리 체계하에서는 가족소농체 등이 가속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탈출하고자 완주군은 '먹거리 통합 프로젝트'를 기획, 추진했다"고 자세히 설명했다.

시상식에 참석한 박성일 완주군수는 각 도시를 대표한 참석자들 앞에서 완주의 먹거리 정책을 소개했다.

/원주=이종복 기자

전북대, 학생 교육 투자 '거점국립대 2위'

작년 1인당 교육비 1719만원

전북대학교(총장 이남호)는 5일 학생에 투자하는 교육비가 국립대학 법인 서울대를 제외한 9개 거점국립대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2014년 이후 4년 연속이다.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운영비나 장학금 도서구입비 실험실비 기계기구매입비 등 학생 수로 나눈 금액으로 대학이 학생 교육에 얼마만큼 비용을 투자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지표다.

또한, 2018 대학정보공시에 따르면 전북대는 지난해 학생 1인당 교육비가 1,719만원으로 9개 거점국립대 중 2위에 올랐다.

특히, 2014년 1,470만원이었던 전북대는 2015년 1,594만원, 2016년 1,635만원에 이어 2017년 또다시 교육비가 큰 폭으로 오르며 1,700만원을 훌쩍 넘겼다. 학생 1인당 교육비가 1,700만원이 넘는 대학은 전북대와 부산대다.

전북대 학생 1인당 연간 등록금액이 400여만 원임을 감안하면 학생들이 낸 등록금보다 4배 이상의 교육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다.

전국 183개 국, 공, 사립대 평균은 1,546만원으로 이에 비하면 때 전북대는 전국 여느 대학과 비교해 학생 1인당 150만 원 이상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 같은 결과는 학생 1인당 장학금이 큰 폭으로 증가, 정부가 지원하는 재정지원사업을 통한 학생 교육 투자가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이번 정보공시에서 전북대는 교육비뿐 아니라 '학생 1인당 장학금'도 271만7,000원으로 2016년에 비해 1인당 20만원 이상 큰 폭으로 증가했다.

또한, ACE사업을 비롯해 CK사업 LINC사업 CORE사업 등 정부가 교육역량 강화를 위해 지원하는 굵직한 재정지원사업에 모두 선정돼 학생들에 대한 교육 투자 비율을 크게 높이고 있는 점도 높은 교육비

로 귀결되고 있다.

이를 통해 모험인재 양성을 위해 기숙사를 전일, 전인 교육의 장으로 탈바꿈 한 '레지덴셜 칼리지'를 비롯, 학생 누구나 졸업까지 한 학기 이상 해외 대학 등에서 언어와 타 문화를 접할 수 있게 지원하는 '오프캠퍼스' 등 차별화 된 학생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같은 노력을 통해 전북대는 지난 2012년과 2015년 2017년 등 세 차례나 한국표준협회의 서비스품질지수 평가 중 재학생 대학 만족도가 국, 사립을 통틀어 전국 1위에 오르는 성과를 올렸다.

한편, 이남호 총장은 "대학 존재 이유인 학생에 대한 교육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려가는 것은 대학이 해야만 하는 기본 책무"며, "모험인재 양성을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 내실화를 통해 전북대가 학생 교육 투자에서 전국 최고라는 명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靑, 신임 공직기강비서관에 최강욱 변호사... 내일 출근



청와대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에 최강욱 변호사(사진)를 내정한 것으로 5일 알려졌다.

공직기강비서관은 청와대 직원들의 비리를 감찰하고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을 담당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최 변호사는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오는 7일부터 출근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달 31일 감사원 신임 사무총장으로 김중호 전 공직기강비서관을 임명하면서 해당 자리는 공식인 상태였다.

법무법인 청맥 소속인 최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법위 원장 지낸 바 있다. 아울러 2012년부터 지난 달까지 여러 추천 몫으로 MBC방송문화진흥회 이사로 활동했다.

최근까지는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등을 진행했다.

/뉴시스

2018 대한민국 대표축제 축! 전주매일 창간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제22회 자연의 빛 생명의 빛 미래의 빛 www.firefly.or.kr 무주 반딧불축제 The 22nd Muju Firefly Festival 2018. 9. 1 토 ~ 9. 9 일 무주군일원 남대천, 지남공원 반딧불전통공예문화촌 등 주최: 무주군 · 주관: (사)무주반딧불축제제정위원회 주소: 전북 무주군 무주읍 최북로 15 문의: 063)320-5004-17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 환경부 · 진라북도 · 한국관광공사 · 한국문화관광연구원